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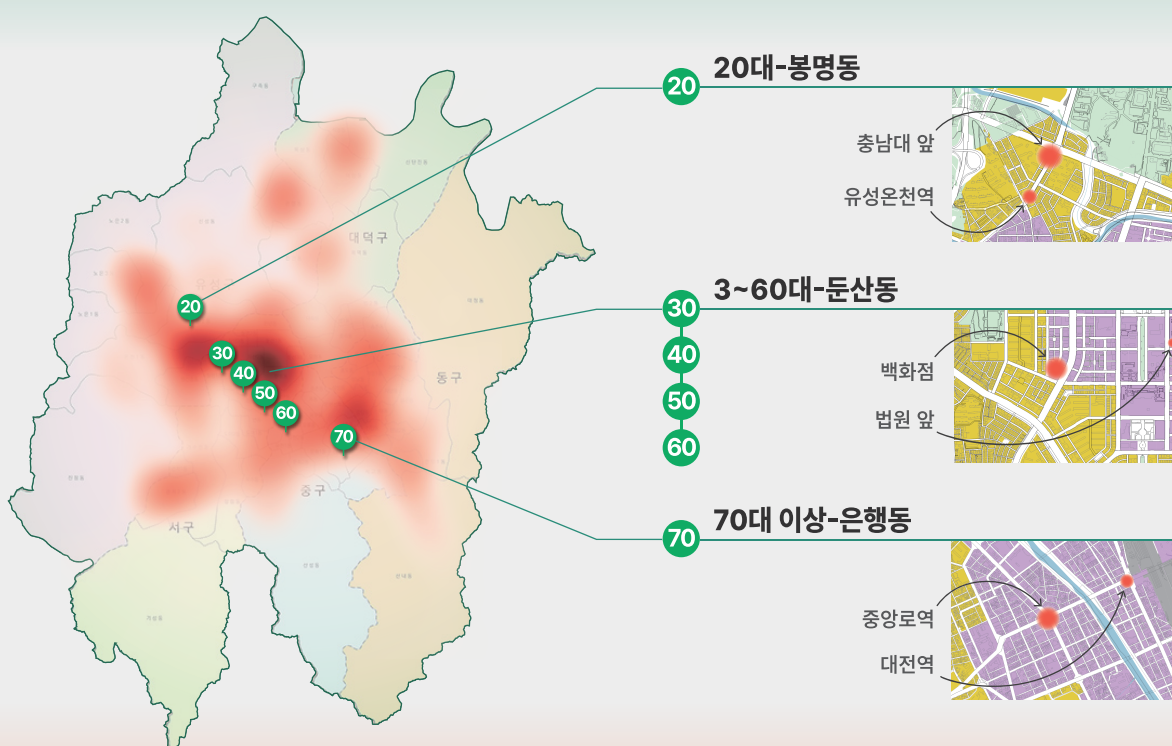
유동인구 데이터로 살펴본 대전

사람들은 대전 어디에 많이 갈까?

'2022년 유동인구 데이터'를 히트맵으로 그렸다. 히트맵(Heatmap)이란 열지도¹⁾라고도 하며, 데이터의 값을 색으로 표현하는 시각화 기법인데, 색조의 변화를 통해 사람들이 어디로 얼마나 많이 움직이는지를 보여준다. 유동인구 데이터는 이동통신사에서 사용자들의 휴대폰 위치를 기반으로 50미터마다 수치화된 데이터이며 1시간당 1명씩 집계된다.²⁾

히트맵은 사람들이 모이는 정도에 따라 색이 점점 짙어지는데, 아주 짙은 부분을 핫스팟(hotspot)이라고 부른다. 핫스팟은 대부분 상업지역(둔산동, 봉명동, 은행동 등)에 위치했다. 충남대 앞, 유성온천역, 둔산동 백화점, 중앙로역, 대전역 등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 2022년 전체 유동인구의 히트맵과 연령대별 핫스팟 |



- 1) 축구경기가 끝나면 스포츠뉴스에서 축구선수들이 어느위치에서 많이 뛰었는지 히트맵(열지도)을 놓고 해설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처럼 히트맵은 사람들이 (서) 있는 위치를 누적하여 많이 있을수록 그 위치를 더 진하게 표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활동영역을 알아보는 데 용이하다.
- 2) 유동인구데이터란 이동통신사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집계한 인구수를 의미하며 집계방식은 아래와 같다.
 - 1시간에 1명씩 집계되는 것이 원칙이며, 기지국 기반으로 집계되는데 기지국간 이동 없이 15분 이상 단일 기지국 내에 있을 때 1명으로 집계된다. 그리고 기지국간 이동하였을 때 발생하는 트래픽을 데이터가 50m 격자로 표시된다.
 - 차량, 기차, 지하철 등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경우는 제외되며, 수면자와 업무집중자 등 생활트래픽이 발생하지 않는 사람도 제외된다.
 - 20세 이하는 휴대폰 소지자가 적고, 부모명의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어 본 조사에서 제외하였다.
 - 즉, 목적을 가지고 이동 및 활동하는 사람들의 수를 셀 수 있다.

자료: 통계데이터센터(2022년 유동인구데이터)

핫스팟 개수로 살펴본 활동반경

핫스팟은 짙은 정도가 심해 검정색으로 보이고, 많이 모일수록 그 검정색의 범위가 넓어진다. 이러한 차이를 기준으로 핫스팟의 개수와 순위를 나누었다.

대전시의 유동인구를 연령, 성별, 주/휴일로 소분하여,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았다.

남성, 여성 모두 핫스팟 평균은 21개로 동일하게 나타났고 성별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차이가 없었으나, 연령대와 주/휴일에 따라 남녀의 차이가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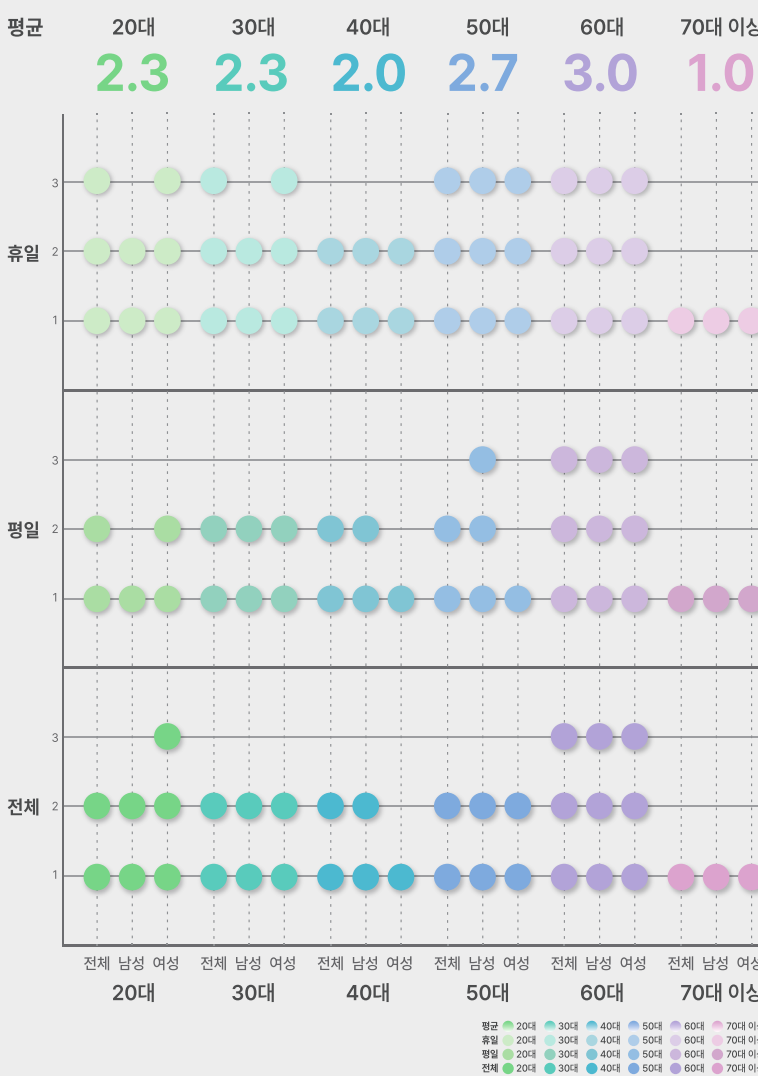
20대 남성은 봉명동 한 곳만 집중적으로 갔지만, 이에 비해 20대 여성은 봉명동, 둔산동, 은행동 3곳 모두 많이 갔다.

20대와 30대에서는 여성의 핫스팟의 개수가 더 많았고, 40대와 50대에서는 남성의 핫스팟이 더 많았다.

주/휴일로 구분하였을 때, 남성이 주간에 여성 보다 핫스팟이 0.3개 더 많았지만 반대로 여성은 휴일에 0.3개 더 많았다. 핫스팟의 개수는 20대부터 60대까지는 핫스팟이 2~3곳이었으나, 70대 이상은 성별, 주/휴일 구분 없이 1곳이었다.

| 2022년 전체 유동인구의 히트맵과 연령대별 핫스팟 |

(단위: 개)



연령과 성 그리고 주·휴일에 따라 다른 활동반경

40대에서 핫스팟 개수가 감소하는 모양을 보였지만, 40대는 짙은색의 범위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넓다. 즉, 4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활동범위가 더 다양하고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만약 핫스팟의 기준을 조금 낮춘다면 40대의 핫스팟 개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측된다. 40대와 50대의 둔산동 핫스팟은 다른 연령에 비해 더 넓은데, 이것은 백화점이 있는 둔산동 서측 뿐만 아니라, 법원 앞인 둔산동 동측도 많이 이용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40대, 50대, 60대 여성들은 핫스팟 이외에도 도룡동과 노은동이 다른 지역에 비해 더욱 짙게 표시 되는 특징을 보였다. 주/휴일 구분 없이 전체 연령대별로 살펴봤을 때는 30대~60대의 1순위가 둔산동이지만, 주/휴일로 나누어 보면 다르다. 30대의 경우, 평일에는 남녀 모두 둔산동이 1위이지만, 휴일에는 남성의 1순위가 봉명동이며, 여성의 1순위는 둔산동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핫스팟 동네 순위가 연령과 성 그리고 주/휴일 따라 달라졌다. 20대, 30대, 70대 이상의 핫스팟은 짙은색의 범위가 좁고, 더욱 짙게 표현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들의 활동지역은 좁은 지역에 집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짙은색의 범위는 20대에는 좁았으나, 60대까지 넓어지다가 70대부터 다시 좁아지는 현상을 보였다. 40대부터 70대 이상까지는 남성과 여성의 히트맵이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가족이 함께 움직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